

광주 기아의 야심작 신형 ‘스포티지’가 왔다



4세대 ‘The SUV, 스포티지’ 공식 출시...본격 판매 돌입

동급 최대 차체...초고장력 강판 18%서 51%로 확대

선행 차량 급정지·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스마트한 기능

내달 출시 U2 1.7 디젤, 변속 반응·연비 개선 탁월

기아자동차가 야심차게 준비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대표 모델인 ‘The SUV, 스포티지’가 15일 첫선을 보였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 W호텔에서 ‘The SUV, 스포티지’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스포티지는 1993년 세계 최초의 도심형 SUV인 1세대 모델 출시 후 전세계에서 380만대 이상 판매된 모델이다. ‘The SUV, 스포티지’는 44개월 동안 총 3900억원을 투입해 완성했다. 광주공장 발전을 이끈 걸인자 역할을 해온 스포티지는 2004년 8월 2세대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해 12월 광주공장 사상 최초로 북미시장에 진출했다. 2010년에는 3세대인 ‘스포티지R’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까지 단일생산 차종 1000만대를 돌파하는 기업을 토했다. 2015년 8월 현재 누적생산 160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외관은 ‘스포티 & 파워풀 디자인’이란 키워드로 디자인됐다. 기아차만의 차별화된 유선형 후드 라인에 과감한 조형 배치를 통해 강렬한 에너지를 표출하고 볼륨감 속에 팽팽한 역선을 조화시켜 속도감과 깊이를 강화했다. 후드 위로 상향 배치된 헤드램프는 역동적 비례감을 제공한다.

전장 4480mm, 전폭 1855mm, 전고 1635mm의 동급 최대 차체 크기를 갖췄다. 실내공간을 결정짓는 휠베이스(축간거리)는 30mm, 전장 역시 40mm 늘어나 탑승객에게 더욱 넓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한다.

실내공간 구조 또한 최적화돼 넓어진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2열 러기지 보드 적용,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각도의 획기

적 증대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했다.

R2.0 디젤 엔진 모델은 최고출력 186마력, 최대토크 41.0kg·m의 동력성능에 친환경 배출규제 ‘유로 6’을 만족시킨 고효율 터보차저를 적용했다. 14.4km/ℓ(QWD, 자동변속기, 17/18인치 타이어 기준)의 우수한 공인연비를 확보했다. 일체형 대쉬패드 적용을 통한 엔진 투과음 개선, 흡차음재 보강 등으로 최상의 정숙성을 실현했다.

내달 출시 예정인 U2 1.7 디젤 엔진 모델은 2개의 클러치가 교대로 작동하며 민첩한 변속반응 속도와 탁월한 연비개선 효과를 동시에 구현하는 7단 DCT가 적용될 예정이다.

‘The SUV, 스포티지’는 초고장력 강판을 기존 18%에서 51%로 확대 적용했으며 동급 SUV 최초로 충돌 속도에 따라 압력을 두 단계로 조절하고 동승석 승객의 탑승 유무를 감지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다.

선행 차량 급정지 등 전방충돌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 사각지대 차량 또는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해 위험을 알려주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BSD)’ 등 신기술도 대거 동원했다.

이 밖에 별도의 연결잭 없이 센터페시아 하단 트레이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이뤄지는 장치, 스마트키 소지 상태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등의 사양도 탑재했다.

가격은 R2.0 디젤 엔진 모델 기준 트랜디 2346만원, 프레스티지 2518만원, 노블레스 2601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2842만원(6단 자동 변속기 기준)이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사전 계약을 통해 R2.0 디젤 모델 단독으로 5000여대가 계약됐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스포티지는 도심형 SUV의 효시로서 1세대부터 꾸준히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세계 SUV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며 “디자인, 상품성, 품질 등 모든 측면에서 한층 더 높고 차별화된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한우(왼쪽에서 두번째) 기아차 사장과 김창식(맨 오른쪽)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이 이날 출시된 ‘The SUV, 스포티지’ 옆에서 모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37.56 (+6.10)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2)

▲ 코스닥 666.75 (+3.87) ▲ 환율 (USD) 1186.70원 (+3.60)



부영, 혁신도시에 임대 아파트 공급

‘사랑으로’ 708세대

부영주택이 광주·전남혁신도시 B-3블록에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조감도) 708세대를 공급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 B3블록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23층 9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60㎡ 72세대, 84㎡ 636세대 총 708세대로 구성돼 있다. 임대가격은 전용면적 60㎡가 임대보증금 5700만원에 월임대료 34만원, 전용면적 84㎡는 임대보증금 7700만원에 월 임대료 46만원에 공급된다.

전국으로 통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고속철도(KTX) 나주역과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나주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다.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도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호남권과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에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의 특목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인공 호수공원 중 두 번째로 큰 중앙호수공원과 문화시설을 갖춘 테라스거리, 한옥전통마을, 18층 골프장과 배메산 등이 인근에 있어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청약일정은 ▲16~18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18일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대상자 특별 공급 신청 ▲21일 일반공급 1순위 ▲22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청약자발표는 오는 30일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 계약은 10월 6~8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나주시 빛가람동 348-4에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창조센터 연계사업 협약

창조경제 실현 공동 수요 발굴·창업 생태계 조성 등 협력

광주테크노파크는 14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 노력을 위해 추진주체들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유기호)와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광주지역사업평가단(단장 김동근) 등 3개 기관과 2015년 광주창의융합R&D 선정기업인 남도금형(대표 오기종·북한금형), 신한물딩테크

(대표 이철규·북한금형), 지앤아이(대표 김현석·디자인)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지역 내 창업·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 수요 발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환경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수행 및 성과제고 등이 기대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효성, 中·獨 글로벌 전시회서 ‘탄섬’ 알리기

천연압축가스 고압 용기·전선 심재 등 제품 선보여

효성이 글로벌 전시회에 잇따라 참가하며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탄소섬유 브랜드인 ‘탄섬(TANSOME?)’ 알리기에 나섰다.

효성은 오는 22~24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컴포지트 유럽 2015’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컴포지트 유럽은 유럽 최대 탄소 복합재료 전시회로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천연압축가스(CNG) 고압 용기, 전선 심재 등 탄섬으로 만든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탄소섬유 복합재료 시장의 트렌드 및

경쟁사 동향을 파악해 신규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효성은 열가소성 탄소섬유 합성물 제조 업체인 액시아 머티리얼스,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활용한 가방 및 케이스 제작 업체인 케이스 등과 함께 전시회에 참가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효성은 지난 4~6일 중국 상

하이에서 열린 복합재료 전시회 ‘2015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China Composites Expo)’에 참가해 탄섬 브랜드 인지를 높이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다.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은 “효성은 후발업체로 탄소섬유 시장에 도전해 기술력과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향후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 최첨단 소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탄소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 현장 상황 CCTV
- 안내방송
- 기계동작소리 청취
- 상태감시
-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만장
- 배수갑문
- 양수장
- 저수지
- 골포장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M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 670-0300